

建軍 51주년 국군의 날을 축하하며...

건군 51주년 국군의 날을 맞이하여 국가방위에 여념이 없는 국군장병과 자주 국방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방산업체 임직원 및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軍은 창군 당시 제대로 된 무기도 없이 일천한 상태에서 6·25전쟁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다하였고, 50여년간의 분단과 대치 상황에서 끊임없이 계속된 북한의 도발에 과감히 맞서 조국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임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오늘날에는 최신 전차와 전투기, 함정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주요 무기체계를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어내고 있고 최근에는 세계평화유지군(PKO) 활동에도 참여해 세계 평화와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더욱이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신념으로 시작한 우리의 방위산업이 30년을 바라보는 오늘 결실을 맺어 북한의 위협에 당당히 맞설 수준에 이르렀고 이는 지난번 서해 교전을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우리 군이 대북 우위의 자신감을 획득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방산업계는 정부의 조달물량 감소에 따른 가동률 저하와 방산 전용시설의 유희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더 나아가 東西 화해 무드에 편승해 일부 계층에 안보 불감증이 만연해 軍과 방위산업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어 심히 우려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가오는 2000년대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방위산업은 현재의 위기를 다시한번 도약하는 발판을 구축하는 기회로 삼아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裴一成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

첫째, 독자적 핵심 무기체계 개발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전쟁에서 2등은 존재하지 않듯이 무기체계 개발에도 2등은 필요없습니다. 개발 가능한 분야를 찾아 독창적 기술개발에 노력해 우리만의 무기체계 확보에 주력해야겠습니다.

둘째, 해외 수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국내 무기체계 수요가 충족된 이상 방산업체가 살 길은 해외 수출 밖에 없습니다. 국제 마케팅 능력을 갖추고 수출 가능한 분야를 집중 개발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셋째, 연구개발투자에 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우루과이라운드(UR)로 자동차, 전자 등 개별 산업 부문에 대한 정부의 직접 지원이 곤란해진 최근, 선진국은 이의 해소책으로 국방연구개발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연구개발에 과감히 투자비를 늘려 기술 확보에 주력해야 하겠습니다.

향후 우리의 방위산업도 경영합리화를 통해 21세기를 대비한 방위산업으로 탈바꿈하는데 총력을 다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통일된 한국의 미래를 향해 힘차게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月刊 <國防과 技術>誌의 발행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제한된 부수에도 불구하고 애독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국민의 신망을 받는 「국민의 군대」로서 서해 교전에서 보여준 것과 같은 자신감으로 국토방위에 최선을 다하는 국군장병 여러분의 健勝과 武運長久를 기원합니다.